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부모의 놀이참여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2019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유 예 진

부모의 놀이참여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강 이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유 예 진

유예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3세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또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어린 시기부터 기관이용이 늘어가는 사회적 추세와 함께 기관에서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놀이경험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과 부모의 놀이참여(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행동)의 전반적인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부모의 놀이참여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양상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놀이참여(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행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놀이참여(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행동)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반응성, 촉진성, 지시성)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북, 경남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13곳의 3세 유아 132명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

132명씩, 총 39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검사하였으며,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ATA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Pearson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SPSS용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조절효과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은 하루 평균 2.5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이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에 비해 많았다. 주중에는 실내놀이를, 주말에는 실외놀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은 반응성과 촉진성은 약간 높은 편이고 지시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하위영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은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은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중 반응성, 촉진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지시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부모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놀이할 때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 행동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수록, 3세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수준이 높았다. 또한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은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여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반응적인 행동을 더 보일수록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중 촉진성과 지시성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의 상호

작용효과를 갖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유아를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반응이나 놀이에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행동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이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부모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적더라도,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반응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을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 3세아, 또래관계기술, 부모의 놀이참여, 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행동

학 번 : 2017-23882

목 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 1

Ⅱ. 선행연구 고찰 ····· 7
1. 또래관계기술의 정의와 발달 ····· 7
1) 또래관계기술의 정의와 의미 ····· 7
2) 또래관계기술의 발달 ····· 10
2. 부모의 놀이참여 ····· 12
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 ····· 15
2)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 16
3. 유아의 또래관계기술과 부모의 놀이참여의 관계 ····· 19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 21
1. 연구문제 ····· 21
2. 용어의 정의 ····· 22
1) 또래관계기술 ····· 22
2) 놀이참여 ····· 22
(1) 놀이참여시간 ····· 23
(2) 놀이참여행동 ····· 23

Ⅳ. 연구방법 및 절차 ····· 24
1. 연구대상 ····· 24
2. 연구도구 ····· 27
1) 또래관계기술 ····· 27
2) 놀이참여시간 ····· 31

3) 놀이참여행동 ····· 31
4) 언어이해 검사 ····· 32
3. 연구절차 ····· 33
1) 예비조사 ····· 33
2) 본 조사 ····· 34
4. 자료 분석 ····· 35

Ⅴ. 연구결과 및 해석 ····· 36
1.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양상 ····· 36
2. 부모의 놀이참여 양상 ····· 38
3. 부모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 ····· 42
4.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 44
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 46
2)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 49
3)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 51

Ⅵ. 결론 및 논의 ····· 53

참고문헌 ····· 59
부록 ····· 77
Abstract ····· 95

표 목 차

<표 Ⅵ-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26
<표 Ⅵ-2> 또래관계기술 상황의 내용과 질문 예시 ····· 28
<표 Ⅵ-3> 또래관계기술 검사의 응답 유형과 사례 ····· 30
<표 Ⅴ-1>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 37
<표 Ⅴ-2> 부모의 놀이참여시간 ····· 39
<표 Ⅴ-3>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 차이 ····· 40
<표 Ⅴ-4>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 41
<표 Ⅴ-5> 부모의 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행동,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 ····· 43
<표 Ⅴ-6>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조절효과 ····· 47
<표 Ⅴ-7>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조건값에 따른 회귀계수 검증 ····· 48
<표 Ⅴ-8>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촉진적 놀이참여행동 조절효과 ····· 50
<표 Ⅴ-9>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시적 놀이참여행동 조절효과 ····· 52

그 림 목 차

<그림 Ⅴ-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 48

부 록 목 차

<부록1> 또래관계기술 상황의 내용 및 그림 ····· 77
<부록2> 부모용 질문지 ····· 79

Ⅰ. 문제제기

유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는 유아에게 다양한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또래는 주요한 인적 요인이다.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기술을 연습하고 정교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Demir, Jaafar, Bilyk, & Mohd-Ariff, 2012). 사회적 기술은 사람과 사람 간의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기술로 다양한 관계 내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에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Gresham, Elliott, Vance, & Cook, 2011)이다.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 유아는 적극적으로 또래 집단에 참여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Demir et al., 2012). 반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유아는 또래에게 거부당하거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Crawford & Manassis, 2011; Fox & Boulton, 2006; Greco & Morris, 2005).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학령기의 발달과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아기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은 학교 전이기의 성공적 적응에 도움을 주며(Bierman, Torres, Domitrovich, Welsh, & Gest, 2009; Denham, 2006; Ziv, 2013)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ntuzzo & McWayne, 2002; Hampton & Fantuzzo, 2003). 반면, 유아기의 부정적 사회적 기술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학교 중퇴, 비행, 아동의 정신 병리적 문제 등 이후의 부적응과 관계가 있다(Ladd & Burgess, 2001; Segrin, 2000). 이를 통해 볼 때, 이후 삶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유아기에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아동기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정서적 발달까지도 예측하는 변인으로 중요한 발달적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보육비 지원 증가로 인해 보육·교육 기관을 일찍부터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육아정책연구소, 2018)하고, 유아가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최윤경, 이윤진, 김세현, 나지혜, 2012). 이는 현대의 유아가 이른 시기부터 낯선 환경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아가 사회적 능력을 연습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또래관계(Johnson, Christie, & Wardle, 2005; Rubin, Bukowski, & Parker, 2006)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수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4, 5세 유아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김수희, 2015; 김지현, 정지나, 2011; 박선영, 2012; Abdi, 2010; Mashburn, et al., 2008).

그렇지만 최근 들어 3세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3세 유아는 공감 발달, 타인의 관점에 대한 이해, 마음이론의 발달과 함께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친구 관계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로(Selman & Schultz, 1990),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나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Hughes, 2009). 특히 이 시기는 가정에서 기관으로, 그리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전이기이기도 하다. 즉, 3세는 또래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기관에서 경험하는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또래관계기술의 발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또래관계기술의 발달이 3세 유아의 주요 발달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과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가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인 중 부모변인에 주목해볼 수 있다. 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행동양상이나 사회적 기술을 배우기 때문이다(Bocknek, Brophy-Herb, & Banerjee, 2009; Hastings, Utendale, & Sullivan, 2007, Laible, Thompson, & Froimson, 2007). 유

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 중 하나는 놀이 활동이다. 유아의 놀이에서 부모참여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바(Damast, Tamis-LeMonda, & Bornstein, 1996; Haight, 1998; MacDonald, 1993), 3세 유아의 또래관계 기술에 부모의 놀이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놀이참여는 자녀양육활동 중 놀이 활동을 통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Damast et al., 1996). 국내 연구에서 부모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사회적 유능성 등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류희정, 이진희, 2013; 최혜순, 김찬숙, 2011; 한영숙, 2006).

부모의 자녀양육활동 참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각적으로 구성되며 다르게 정의 될 수 있다(Lamb, 2000).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와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Flouri & Buchanan, 2003; Gaunt, 2005)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한편, 질적인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Carlson 2006; Rohner & Veneziano, 2001)은 긍정적이며 따뜻함, 친밀감 등을 보여주는 높은 질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의 관계를 밝혔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참여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두 측면은 모두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자녀양육행동의 하위범주로서 부모의 놀이참여 또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측면 모두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놀이참여의 양적, 질적 측면을 구분하여 확인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부모의 놀이참여를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으로 구분하여 3세 유아가 경험하는 부모 놀이참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검토해보고자 한다.

인간자본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은 자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Becker, 1981).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iorini & Keane, 2014; Hsin, 2009). 특히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연구결과(예: 신인숙, 이경애, 2005; 한영숙, 2006)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서미옥, 2004)인 또래관계기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모의 양육참여의 양적 측면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Connell & Prinz, 2002)을 고려할 때, 부모와 자녀가 놀이하는 시간 역시 유아의 또래관계기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동안 부모가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 즉 질적인 측면 또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 기능 수준이 다른 것(Landry, Smith, Miller-Loncar, & Swank, 1998; Lindsey, Cremeens & Caldera, 2010)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 선행연구(문병환, 김세루, 2011; Lindsey et al., 2010)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보이는 행동이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지시적이기 보다는 지지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유아는 사회적으로 유능하다(Deković, Gerris, & Janssens, 1991; Denham, Renwick, & Holt, 1991; Landry et al., 1998). 이에 반해, 부모가 민감성이나 반응성이 낮은 등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더 많이 나타난다(Trautmann-Villalba, Laucht, & Schmidt, 2006).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부모가 보

이는 반응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에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와의 놀이 경험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놀이를 많이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들은 시간 부족을 언급한다(박영애, 김리진, 2011).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부족을 상호작용의 질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간동안 놀이를 해도 부모가 유아에게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면 유아의 놀이가 보다 확장될 수 있으며(Lareau & Weininger, 2008),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음(Booth, Clarke-Stewart, Vandell, McCartney, & Owen, 200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많은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자녀와의 놀이시간 부족이라는 문제가 부모의 놀이상호작용이라는 질적 측면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지 검토해봄으로써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놀이참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많은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 아버지의 양육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김영란, 주재선, 김난주, 최진희, 2015)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유아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아와 주로 신체적 놀이를, 어머니는 주로 언어적 놀이를 많이 한다(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3).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유형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MacDonald & Parke, 1984). 또한,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보여주는 양육환경이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Rinaldi & Howe,

2012).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부모의 놀이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놀이참여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3세 유아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놀이참여를 조사함으로써 부모의 놀이참여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놀이참여를 설정하고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놀이참여시간의 영향이 부모가 보이는 놀이참여행동의 양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현대 사회의 부모들에게 3세 자녀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에 효과적인 놀이참여행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정의와 발달을 살펴보고, 부모의 놀이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한 문제를 구체화하여 연구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또래관계기술의 정의와 발달

1) 또래관계기술의 정의와 의미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미취학 영유아 중 66.7%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육아정책연구소, 2018). 또한, 2012년 누리과정 및 영아 무상보육과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영유아가 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평균 이용시간은 7.09시간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12). 이처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기관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는 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아가 또래와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 시간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유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유아에게 또래는 연령, 정신, 신체적 발달과 행동이 유사하여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는 유아(Shaffer, 2008)로서, 서로의 발달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적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래관계의 중요성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다. 먼저,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Sullivan은 또래관계를 성격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또래관계는 수직적인 성인과의 관계와는 구별되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의 관계로 유아로 하여금 또래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해주는 수평적인 관계이다. 둘째로 인지발달이론 관점에서는 또래와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사고나 정서,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예컨대 Piaget는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내적인지갈등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며 인지가 발달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Bandura와 Walters는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또래를 유아에게 중요한 사회적 행동의 모델로 보고, 유아는 또래의 행동을 보고 사회적 행동을 학습한다고 설명하였다. 많은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유아에게 또래관계는 성인과의 수직적인 관계와는 달리 수평적인 관계로 유아의 정서, 인지,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촉진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요구된다(Demir et al., 2012; McCabe & Marshall, 2006). 사회적 기술은 인간이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와 비언어적인 행동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Bedell & Lennox, 1997)이다. 또한 사회적 기술은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다(Gresham et al., 2011; Gresham & Reschly, 1987).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기술이란 대인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조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해왔다. Maccoby(1980)는 유아기의 사회적 기술에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인식, 처리, 변화시키는 정서 조절능력,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 형성능력, 기관에서 규칙과 질서를 이해하고 또래 및 교사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유치원 적응능력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Gresham과 Elliott(2008)은 유아기 사회적 기술이 자기통제, 언어적 주장, 협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기술은 여러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행동, 능력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행동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는가에 따라 사회적 기술은 다른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Merrell & Gimpel, 2014).

유아기는 가족 구성원 외에 타인과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

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야하는 시기이다(Gagnon et al., 2014). 유아는 보육·교육 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면서 여러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특히 또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Rubin et al., 2006)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인 또래관계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을 유형화 한 20여 년간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또래관계기술에는 칭찬하기, 도움 제공하기, 또래를 놀이에 참여시키기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Caldarella & Merrell, 1997). 이와 관련하여 McGinnis와 Goldstein(1990)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기술로 듣기, 고마움 표현하기, 도움 요청하기, 인사하기, 참여하기, 공유하기, 도와주기 등이 포함된 기초 사회 기술과 또래 사귀기 기술이 있다고 하였다.

또래관계기술이 다양한 측면에서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유아는 협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또래집단에 참여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Cillenssen & Bellmore, 2010; Gresham & Elliott, 2008). 반면, 사회적 기술 수준이 낮은 유아는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Demir et al., 2012; Greco & Morris, 2005; Ladd, Price, & Hart, 1990; Segrin & Taylor, 2007).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은 학교준비도와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Webster-Stratton & Reid, 2004; Ziv, 2013). 구체적으로 또래관계를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유아는 학교로의 전이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이후 문해나 수학과 같은 학업 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ierman, et al., 2009; 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Fantuzzo & McWayne, 2002; Fantuzzo, Sekino & Cohen, 2004; Hampton & Fantuzzo, 2003;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반면, 이 시기의 사회적 기술의 결핍으로 인해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한 유아는 학령기에 낮은 학업 성취도, 잦은 결석,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eRosier, Kupersmidt, &

Patterson, 1994; Hartup & Moore, 1990; Meagher, Arnold, Doctoroff, Dobbs, & Fisher, 2009; Prinstein, Rancourt, Guerry, & Browne, 2009; Segrin, 2000; Woodward & Fergusson, 2000).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유아기의 또래관계기술은 유아기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령기의 사회성발달까지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관련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유아기 또래관계 질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또래관계기술의 발달

또래관계기술의 발달은 여러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유아 개인의 변인으로는 유아의 연령이나 성별이 개인차를 예측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기술 차이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사회적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인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술의 발달 양상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사회적 능력은 어린 영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다.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아는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한다(Vandell & Mueller, 1980). 급격한 언어발달이 나타나는 2세 전후에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나타내며 이에 주위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이경진, 신수진, 김희태, 2017).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유아는 또래관계에 관심이 많아지고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확산된다(정옥분, 2006). 이에 따라 3~4세가 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유아는 다른 또래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성인들보다는 또래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Harper & Huie, 1985). 즉, 연령이 높아지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확장되고 보다 다양한 기술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3-5세 유아의 사회적 기술 연령차를 살펴본 장영숙, 강경석, 김희정(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연령차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기술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또래관계기술 또한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다 정교해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영아기에는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 교사 등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대부분이나, 3~5세 유아기는 하루 중 일부 시간을 기관에 등원을 하여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상호작용에 적응해야한다(Gagnon et al., 2014). 유아기 중에서도 영아기와 유아기의 경계인 3세는 가정에서 교육기관 혹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환경이 확장되는 전이기이다. 더불어, 3세가 되면 교사 1인당 유아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유아는 기관에서 교사보다는 또래와 관계를 맺고 놀이를 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3세는 사회적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들의 또래관계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은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과 함께 작용하여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인으로(Walker, Irving, & Berthelsen, 2002), 성별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어왔다. 일부 선행연구(김수희, 2015; 박선영, 2012; Abdi, 2010; Walker, 2005)에서는 사회적 기술에서 성차가 나타났는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은 연구에 따라 상이했다. 이에 반해 박영아(2010)와 장영숙과 그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에서 남아와 여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회적 기술의 성차를 비교한 연구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기존의 사회적 기술을 살펴본 연구들은 또래와 교사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황론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는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술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유아일지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사회적 기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Hartman et al., 2007)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또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초점을 맞춘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고, 여기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부모의 놀이참여

부모는 유아가 오랜 시간 모델링할 수 있는 대상이며, 부모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다(Clark & Ladd, 2000; Maccoby & Martin, 1983). 또한, 출생 후 주 양육자와 처음으로 맺는 사회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유아기와 그 이후의 안정적이고 유능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Elicker, England, & Sroufe, 1992; Schneider, Atkinson, & Tardif, 2001; Shulman, Elicker, & Sroufe, 1994). 이와 같은 이유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요인 중에서도 부모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Ashiabi, 2007). 또한 유아기의 놀이 경험은 학업성취, 사회성, 창의성 등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lasi, Hurwitz, & Hurwitz, 2002; Ginsburg, 2007; McWayne, Fantuzzo, & McDermott, 2004; Miller & Almon, 2009). 이와 같이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지표이자 환경으로서의 놀이는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활동이다(Damast et al., 1996). 이에 유아가 또래관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좋은 환경으로서 부모의 놀이참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참여는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Baruch & Barnett, 1986)으로, 부모의 놀이참여는 자녀의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는 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Damast et al., 1996),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면 자녀는 놀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껴 놀이를 다양화시키며 놀이시간

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Smilansky & Shefatya, 1990). 또한, 부모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창의성, 언어능력을 포함한 인지적 발달과 놀이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조망수용능력, 협동 등의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Henry, 1990; MacDonald & Parke, 1984; Smilansky & Shefataya, 1990).

자녀 양육활동에 부모의 참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각적으로 구성되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Lamb, 2000).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참여의 시간이나 횟수와 같은 양적 측면을 강조하여 자녀의 발달과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예컨대, Salem, Zimmerman과 Notaro(1998)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 및 약물복용 등 비행이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Flouri와 Buchanan(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참여의 횟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Carlson, 2006; Flouri, 2004)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과 발달에 부모의 양육참여의 질적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Rohner과 Veneziano(2001)는 부모의 따뜻함과 친밀감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 양육참여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모두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부모 놀이참여를 살펴본 연구(신인숙, 이경애, 2005; 이영석, 성영화, 2006; 최혜순, 김찬숙, 2011)들은 Stevenson, Leavitt, Thompson과 Roach(1988)의 놀이유형과 이숙재(1984)의 부모의 놀이참여정도 단계를 참고하여 제작된 놀이유형 별 부모의 놀이참여 측정도구를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분석은 부모의 놀이참여를 무관심, 바라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4단계로 측정하여 놀이참여정도만 제공할 뿐 부모의 놀이참여의 양적인 측면인 놀이참여시간과 질적인 측면인 놀이를 하는 동안 부모가 보이는 행동을 알 수 없다. 이처럼 부모의 놀이참여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므로, 부모의 놀이참여를 보다 풍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여 함께 확인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여성의 취업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양육이 전적으로 어머니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였다(Kazura, 2000; Pleck & Masciadrelli, 2004).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주요한 역할로 인식된다. 또한 유아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녀와 서로 다른 유형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MacDonald & Parke, 1984). 구체적으로 어머니는 역할놀이나 상상놀이 등에 주로 참여하여 언어적이고 인지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보이고 아버지는 신체적 놀이에 주로 참여하여 신체적 자극이나 감각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김명순 외, 2013; John, Halliburton & Humphrey, 2013; MacDonald & Parke, 1984).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형태로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지만 모두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MacDonald와 Parke(1984)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신체적 놀이참여와 어머니의 언어적 놀이참여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순과 김찬숙(201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정서성에 보다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놀이참여는 자기결정이나 행동억제 측면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아버지와의 놀이상호작용과 어머니와의 놀이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질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Parke, 1981)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자녀의 발달에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 놀이참여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놀이참여에만 초점을 맞추어왔으므로, 유아가 경험한 부모와의 놀이경험을 모두 반영하고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

인간자본이론과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자원으로 자녀의 발달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Becker, 1981; Coleman, 1988). 이들의 관점에서 부모의 시간은 안정적인 주양육자로서의 부모가 자녀에게 지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발달론적인 관점에서도 자녀와 함께 하는 부모의 시간은 부모가 자녀의 생애 초기에 제공하는 인지·사회적 자극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elsky, 2001).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자녀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유아가 안정 애착을 형성하도록 도우며(Belsky, 2001) 유아의 정서적인 발달(Bono, Francesconi, Kelly, & Sacker, 2016)과 인지적인 발달(Fomby & Musick, 2018; Fiorini & Keane, 2014)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와 함께 한 시간이 많으면 유아의 문제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a).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효과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기는 하나(Lamb, 2010), 자녀와 함께 보낸 아버지의 시간 또한 어머니와 유사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Pleck, 2010)된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중에서도 놀이를 함께 하는 시간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많은 집단에서는 놀이참여시간이 적은 집단에 비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고(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인숙, 이경애, 2005; 한영숙, 2006).

유아가 부모와 놀이상호작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는 기술(Henry, 1990)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놀이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선행연구(신인숙, 이경애, 2005; 한영숙, 2006)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시간

이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부모의 맞벌이 가정형태, 출산 후 여성의 이른 직장 복귀, 짧은 출산휴가, 자녀의 사교육 등으로 현대 사회의 부모는 자녀와 충분한 놀이시간을 갖지 못한다. 최혜순과 김찬숙(2011)의 연구에서는 3~5세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은 하루 평균 0.92시간이었고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은 하루 평균 1.26시간으로 나타났다. 김명순과 그 동료들(2013)의 연구에서도 3~5세 자녀를 둔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을 살펴보았는데,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하는 평균 놀이참여시간은 3.80시간,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하는 평균 놀이참여시간은 4.73시간으로 보고된다. 이승미(2015)의 연구에서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은 하루 평균 0.78시간, 어머니는 0.96시간이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의 연령이 혼재되어 있거나 5세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라 부모의 놀이시간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박은정, 이성림, 2013)에 따라 3세 자녀를 둔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한 종류로, 이 때 상호작용이란 다른 두 유형 간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류를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 자극, 강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상호 보여주는 행동반응이다(Belsky, Rovine, & Taylor, 1984). 따라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이란 부모-자녀 간 놀이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여주는 행동반응은 유아의 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왔다(문병환, 김세루, 2011; Henry, 1990; Lindsey et al., 2010).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반응이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은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과 상관이 있었다(Lindsey et al., 2010). 또한,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병환, 김세루, 2011; Connell & Prinz, 2002).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중 부모가 어떠한 행동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자녀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사회적 능력이나 행동이 다르다(Clark, Menna & Manel, 2013; Landry et al., 1998).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시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며 온화한 언어를 사용하여 유아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지지적이고 수용적일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다(Connell & Prinz, 2002; Denham et al., 1991; Landry et al., 1998). 이에 반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부모가 부적절한 통제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내재화문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Trautmann-Villalba et al., 2006). 연구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부모와 자녀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은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선행연구(김정미, 임희선, 2014; Kazura, 2000; Baird, Haas, McCormick, & Turner, 1992)에서 부모가 보이는 행동반응의 유형으로 반응성, 촉진성, 지시성을 포함한다. 부모의 반응적 행동반응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행동반응이다(Horowitz et al., 2001). 촉진적 행동반응은 부모가 유아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주의, 협력, 참여를 이끌어내고, 부모 자신이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는 행동반응이다(Baird et al., 1992). 지시적 행동반응은 부모가 유아에게 요구하거나, 제안, 지시하고 부모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행동반

응이다(김정미, 임희선, 2014).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에서 보이는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촉진적 놀이참여행동,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선행연구(Healey, Gopin, Grossman, Campbell, & Halperin, 2010; Kazura, 2000,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b)에서 살펴본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은 구조화된 놀이상황에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짧은 시간동안에 얻은 제한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놀이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놀이참여행동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로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부모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Weinfield, Ogawa, & Egeland, 2002). 이에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행동반응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3. 유아의 또래관계기술과 부모의 놀이참여의 관계

현재까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변인들에 대해 밝혀져 왔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놀이참여의 양적, 질적 측면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유아 자녀의 놀이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자녀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모들은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와의 놀이에 많은 시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박영애, 김리진, 2011).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현대사회 부모들에게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참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 변수의 독립적 영향만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Adamsons, 2018).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부모 양육참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Veneziano(2003)과 Harris, Furstenberg, Marmer(1998)은 부모참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모두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Amato와 Gilbreth(1999)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부모 양육참여의 양적 측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질적 측면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각 연구에서 양적인 측면은 부모와 자녀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횟수, 정도이었고 질적인 측면은 각각 따뜻함(Warmth), 친밀감(Closeness),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Authoritative parenting)이었다. 부모참여의 질적 측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양적 측면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양만으로는 유아의 발달에 대한 영향을 설명할 수 없으며(Hawkins & Eggebeen, 1991)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참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지의 차이가 유아의 발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Booth et al., 2002). 부모와 자녀의 놀이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로, 같은 시간동안 놀이를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부모가 어떻게 참여하였는지에 따라 유아의 놀이가 다르게 나타났다(Lareau & Weininger, 2008).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의 양적 측면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 측면이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과 부모의 놀이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과 부모의 놀이참여(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행동)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부모의 놀이참여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양상은 어떠하며,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놀이참여(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행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놀이참여(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행동)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반응성, 촉진성, 지시성)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4-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4-2>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

서 부모의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4-3>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부모의 놀이참여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또래관계기술

사회적 기술은 대인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조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어적·비언어적 행동(Bedell & Lennox, 1997; Gresham & Reschly, 1987)이다. 이 연구에서 또래관계기술은 듣기, 고맙다고 말하기, 도움 요청하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과 인사하기, 참여하기, 공유하기 등과 같은 또래를 사귀는 기술(McGinnis & Goldstein, 1990)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래에게 적절하게 반응하고 요구하는 바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표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2) 놀이참여

놀이참여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양육 활동과 자녀와 관련된 가사활동을 포함하는 양육참여 활동(Baruch & Barenett, 1987) 중 자녀와의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놀이참여는 양적 측면에서 측정한 놀이참여시간과 질적 측면에서 측정한 놀이참여행동으로 구분된다.

(1) 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시간은 하루 중 부모가 자녀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반응을 하는 등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양육에 참여(Lamb, Pleck, & Levine, 1985)하는 시간 중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평균 시간이다. 이 연구에서 놀이참여시간은 자녀와 함께 장난감 가지고 놀기, 장난감 없이 놀기(이야기 나누기, 숨바꼭질), 바깥놀이 하기(산책, 놀이터, 자전거, 공놀이 등), 책 읽기, 예술경험활동(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이나 매체이용 놀이(TV시청, 핸드폰·게임기·컴퓨터 등을 이용한 게임) 하기, 기타 놀이하기 등(도남희, 김정숙, 하민경, 2013)에 참여한 하루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

(2) 놀이참여행동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교류를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 자극, 강화, 반응이 일어나는 역동적 조절 과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상호 보여주는 행동반응(Belsky et al., 1984)이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은 부모와 자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행동반응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놀이참여행동을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촉진적 놀이참여행동,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으로 구분한다.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흥미와 관심, 행동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적합하게 반응해주는 행동반응을 의미한다.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은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자녀의 주의, 협력, 참여를 이끌어내고, 부모 자신이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는 행동반응을 의미한다.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은 부모가 놀이를 하면서 자녀에게 요구, 제안, 지시를 하고 부모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행동반응을 의미한다.

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위의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절차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선정,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의 구성과 내용, 조사 절차와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과 부모의 놀이참여의 관계를 밝히고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이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1809/002-011).

연구 목적에 따라 서울, 경기, 충북 및 경남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13곳의 3세 반에 재원 중인 유아 146명의 부모가 연구자료 수집에 동의하여 면접과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146가구의 자료 중 결석 등의 이유로 조사 과정 전체에 참여하지 못한 4명의 유아, 아버지 혹은 어머니 둘 중 한 분만 응답한 질문지 8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2부를 제외하여 유아 132명의 자료와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 132명씩, 총 26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의 평균 월령은 51.4개월(범위 : 45~56개월)이었다.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 55명(41.67%), 여아 77명(58.33%)이다. 유아가 기관에 재원 중인 기간은 '2년 이상 3년 미만'이 51명(38.6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3년 이상' 47명(35.61%), '1년 이상 2년 미만' 24명(18.18%)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그 가

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Ⅵ-1>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39세(범위 : 29~52세)였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7세(범위 : 26~47세)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대학 졸업 이상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45명(34.09%), 전문기술직이 31명(23.48%), 자영업이 21명(15.91%)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55명(41.6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무관리직이 31명(23.08%), 전문기술직이 18명(13.55%)이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400만원 이상이 94명(71.21%)으로 대체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편이었다.

<표 Ⅵ-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변수		구분	빈도(%)
유아	재원기간	6개월 미만	1(0.76)
		6개월~1년 미만	9(6.82)
		1년~2년 미만	24(18.18)
		2년~3년 미만	51(38.64)
		3년 이상	47(35.61)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9.85)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28(21.21)
		4년제 대학교 졸업	63(47.73)
		대학원 재학 이상	28(21.21)
	직업	전문기술직	31(23.48)
		사무관리직	45(34.09)
		판매서비스직	6(4.55)
		생산노동직	4(3.09)
		자영업	21(15.91)
		전업주부	1(0.76)
		기타	24(18.18)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9.09)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35(26.52)
		4년제 대학교 졸업	62(46.97)
		대학원 재학 이상	23(17.42)
	직업	전문기술직	18(13.85)
		사무관리직	31(23.08)
		판매서비스직	4(3.03)
		생산노동직	0(0.00)
		자영업	9(6.82)
		전업주부	55(41.67)
		기타	15(11.36)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0.76)
		200~300만원 미만	9(6.82)
		300~400만원 미만	28(21.21)
		400~500만원 미만	34(25.76)
		500~600만원 미만	27(20.45)
		600만원 이상	33(25.00)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또래관계기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놀이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결과 분석 시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언어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도구 구성과 절차,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또래관계기술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McGinnis와 Goldstein(1990)이 제작한 기술상황척도(Skill Situation Measure)를 번안한 뒤, 연구 목적에 따라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예비 조사를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도구를 구성하였다.

기술상황척도는 기초 사회 기술(Beginning Social Skills), 기관 적응 기술(School-Related Skills), 또래 사귀기 기술(Friendship-Making Skills), 정서 조절 기술(Dealing with Feelings), 분노 조절 기술(Alternatives to Aggression), 스트레스 조절 기술(Dealing with Stress)로 총 6개 하위영역, 40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 대상 개별 면접 도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로 판단되는 기초 사회 기술 8가지 상황(듣기, 좋은 말 사용하기, 주장하기, 고맙다고 말하기, 칭찬하기, 도움 요청하기, 호의 부탁하기, 설득하기)과 또래 사귀기 기술 8가지 상황(인사하기, 상대방 감정 읽기, 참여하기, 차례 기다리기, 공유하기, 도와주기, 함께 놀자고 제안하기, 공정하게 게임하기)을 선정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구체적인 상황의 내용과 질문의 예시는 <표 Ⅵ-2>에 제시한 것과 같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또래관계기술 상황의 적합성은 아동학 교수 1인과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인, 어린이집 교사 1인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Ⅵ-2> 또래관계기술 상황의 내용과 질문 예시

범주	내용	질문
기초 사회 기술	• 고맙다고 말하기	빨강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파란색 크레파스가 없어요. 친구가 파란색 크레파스를 빌려줘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움 요청하기	빨강이가 친구랑 벽돌 블록 쌓기를 하고 있어요. 빨강이한테는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아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래 사귀기 기술	• 참여하기	친구들이 기찻길 만들기를 하면서 놀아요. 빨강이도 같이 놀고 싶어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유하기	빨강이가 냠냠이를 가지고 주방놀이를 해요. 친구도 냠냠이를 가지고 놀고 싶어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래관계기술 상황의 내용은 그림과 함께 제시되며, 유아가 제시된 그림을 보며 연구자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사에 사용된 그림은 25×17cm 크기로 사용하였으며(<부록1> 참조) 그림 속 주인공은 연구대상 유아와 동성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기술상황척도에서는 유아의 응답을 친사회적인 것과 비친사회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분류한다. 그러나 유아의 응답 중 같은 응답이지만 상황에 따라 질적 수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같이 놀자'라는 유아의 응답은 '공유하기'나 '참여하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친사회적이면서 상황에 맞는 응답이지만 '차례 기다리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친사회적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적절한 응답은 아니었다. 또한, '이거 나랑 해'와 같은 명령조의 응답은 물리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친사회적이지만 부드럽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덜 친사회적인 응답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분화된 응답 분류방식을 택하지 않고, 세분화하

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아의 응답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과 요구기술의 수준을 분류한 선행연구(김영옥, 윤경선, 1999; Levin & Rubin, 1983; Prinz, 1982; Trawick-Smith, 1992; Williams & Schaller, 1993)에 근거하여 유아의 응답을 적극적/간접적 기술, 소극적/직접적 기술, 비사회적/물리적 기술 및 무반응으로 구분하였다.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응답 유형과 구체적인 응답 사례는 <표 Ⅵ-3>와 같다. 상황을 이해하고 각 상황에 적절한 기술로 친구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적극적 기술과 자신의 요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의문형, 청유형 등으로 요구하는 바를 완화시켜 표현하는 간접적 기술은 2점, 상황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소극적 기술과 단순지시, 명령 등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직접적 기술은 1점, 언어적인 위협이 내재되어 있거나 밀기, 때리기, 놀잇감 빼앗기 등의 물리적 기술 혹은 상황과 관련 없는 응답은 0점을 부여하였다. 적극적/간접적 기술로 갈수록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하며 복합적이고 어려운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유아의 발달에 따라 상위 수준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Axia & Baroni, 1985).

또래관계 상황 별로 0~2점을 받을 수 있으며 모두 16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전체 점수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2점이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 상황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또래관계기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Ⅵ-3> 또래관계기술 검사의 응답 유형과 사례

유형	설명	응답 사례	점수
적극적 / 간접적 기술	상황을 이해하고 각 상황에 적절한 기술로 친구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해요. • 친구 슬퍼서 위로해줘야 해요. • 빨강이가 문을 열어줘야 해요.	2
	자신의 요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의문형, 청유형 등으로 요구하는 바를 완화시켜 표현하는 경우	• 여기 위에 블록 좀 올려줄래? • 옆으로 좀 비켜줄래? • 나랑 퍼즐 맞추기 같이 하자	
소극적 / 직접적 기술	상황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기술로 반응하는 경우	• 가만히 있어요. • 친구 슬퍼요. • 친구가 내려놓고 문 열어야 해요.	1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단순지시, 명령 등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 여기 블록 올려. • 안보여. 옆으로 비켜. • 나랑 같이 이거 해.	
비사회적 /물리적 기술/ 무반응	언어적인 위협이 내재되어 있거나 밀기, 때리기, 놀잇감 빼앗기 등의 물리적 행동인 경우 혹은 상황과 관련 없는 경우	•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 그러면 내가 너랑 안 놀 거야. • 뺏어 와요. • 다 부숴요. • 몰라요.	0

2) 놀이참여시간

부모의 놀이참여시간 자료는 부모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 때, 하루 평균 놀이참여시간을 평일과 주말(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개방형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놀이참여시간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만들기 위해 시간사용을 살펴본 선행연구(Booth et al., 2002)를 참고하였다. 주중 일일 평균 놀이시간의 다섯 배와 주말 일일 평균 놀이시간의 두 배를 합하여 일주일의 놀이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다시 하루 단위로 환산하여 하루 평균 놀이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였다. 또한 하루 평균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은 아버지의 하루 평균 놀이참여시간과 어머니의 하루 평균 놀이참여시간을 합하여 2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3) 놀이참여행동

유아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행동에 관한 문항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반응 질문 문항은 김정미, 임희선(201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 상호작용행동 검사(Interactive Behavior Sclae for Parent; IBSP)를 놀이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부모 상호작용행동 검사는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만지는 것이나 보고 있는 곳을 함께 쳐다본다.”, “나는 아이가 잘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해준다.”와 같은 반응성 7문항,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아이와 장난감 없이 놀이를 하라면 막막할 것이다”와 같은 촉진성 7문항, “아이와 놀이를 할 때, 내가 주도하는 편이다.”, “아이와 놀이할 때, 아이보다 내가 하는 말이 더 많은 편이다.”와 같은 지시성 7문항으로 구성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자녀와 놀이할 때 본인의 행

동에 근거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촉진성에 속하는 7문항은 부정진술문, 지시성에 속하는 1문항은 긍정진술문으로 역산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점수는 상호작용 하위요인 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행동 점수를 합산한 뒤 2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참여행동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 별 놀이참여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놀이상호작용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반응성은 .67, 촉진성은 .75, 지시성은 .66으로 나타났다.

4) 언어이해 검사

또래관계기술 검사 수행은 언어적 보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아의 언어 능력을 통제하고자 언어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는 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이 표준화한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4판(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Ⅵ: K-WPPSI-Ⅵ)의 언어이해 지표에 속한 수용어휘와 상식 소검사를 사용하였다. 언어이해 검사의 점수 범위는 14~4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이해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검사, 언어이해검사, 부모 질문지의 적합성 및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유아 7명과 3세 유아를 자녀로 둔 아버지 3명,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래관계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상황척도에서 사용된 40가지 상황 중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학 전공자 4인의 자문을 구해 기관 내 또래와의 놀이 상황과 관련된 16가지 상황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상황에 대한 그림 도구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상황 그림에서 내용과 관련이 없어 유아의 주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요인이나 내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호의를 부탁하기' 상황에서 "친구야, 자리 좀 비켜줄래?"와 같은 답을 기대하였으나 그림에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친구 한 명과 옆에서 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뿐이었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많이 있어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칭찬하기' 상황에서 "우와, 멋지다."와 같은 반응을 기대하였으나 그림에서 블록 집 옆에 있는 다른 블록들 때문에 "여기 또 블록이 있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반응을 토대로 유아의 주의 집중을 분산시키거나 혼란의 여지가 있는 요인을 일부 수정하였다.

1차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제작한 그림 도구를 사용하여 1차 예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 5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과제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본 조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또래관계기술 검사는 약 7~10분이 소요되었다.

부모용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5~10분이었다.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정사항 없이 질문지를 그대로 본 조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8년 9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 경기, 충북, 경남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실시하였다. 또래관계기술 검사는 유아가 직접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듣고 응답해야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실내의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또래관계기술 검사 수행이 언어적 보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아의 언어 능력을 통제하고자 언어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언어이해 검사와 또래관계기술 검사는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유아는 처음 만나는 것으로 유아가 낯선 감정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언어이해 검사를 먼저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검사도구로 그림 카드와 기록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용어휘와 상식의 2가지 소검사를 실시하였고 약 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또래관계기술 검사는 유아가 총 16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질문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또래관계기술 검사의 적용순서는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각 유아마다 제시 순서를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앞으로 제시될 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뒤, 임의의 순서로 또래관계기술 검사의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후 그림 속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기록지에 그대로 기록하여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전체 응답 중 무작위로 20%를 추출한 다음, 채점 기준을 숙지한 아동학 전공자 1인과 연구자의 평정자 간 일치도를 살펴보았으며, 확인 결과, .97로 높은 편이었다.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평정자 간 논의를 거친 후 채점하였다. 유아가 또래관계기술 검사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7~10분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부모에게는 유아와의 놀이시간, 유아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의 행동반응,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조사 당일 가정으로 전달하여 질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146부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질문지 10부와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의 부모 질문지 4부를 제외한 132명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TATA 1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Pearson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앞서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계수를 산출하여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추정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양상과 성별에 따른 차이, 부모의 놀이참여 양상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고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행동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부분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인의 조건값 별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은 Hayes(2013)가 제공하는 SPSS용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위의 연구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연구 결과를 기술하며,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양상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Ⅴ-1>과 같다. 16가지 상황에서 가능한 또래관계기술의 총 점수범위는 0~32점이다.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의 평균 점수는 32점 만점에서 20.21점(SD=3.91)으로, 척도 상 중간점수인 16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또래와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 또래관계기술은 약간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세아의 사회적 기술의 점수가 중간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권희경, 2009; 장영숙 외, 2003)에서 확인된 수준과 유사하였다.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여아(M = 20.60, SD = 3.74)가 남아(M = 19.67, SD = 4.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t = -1.34, *n.s.*)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기술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김지현, 한준아, 조윤주, 2015; 박영아,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수준이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김지현, 정지나. 2011; Abdi, 2010)와는 상반된다. 사회적 기술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아기의 여아는 남아에 비해 사교적인 성향을 더 보이며 남아는 여아에 비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데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김지현 외, 2015). 그러나 이러한 성차는 크지 않으며(Eisenberg & Fabes, 1998)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Grusec, Goodnow, &

Cohen, 1996). 사회적 상황 중에서도 갈등 상황에 대해서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Walker et al, 2002)를 기반으로 해석해볼 때, 또래관계기술을 살펴보고자 하였던 상황들에는 갈등상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별에 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유아의 성별을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Ⅴ-1>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변수	성별	*N*	*M* (*SD*)	*t*
또래 관계 기술	기초 사회 기술	남아	55	8.71(2.43)	-1.87
		여아	77	9.43(2.20)	
		전체	132	9.13(2.32)	
	또래 사귀기 기술	남아	55	11.04(2.22)	-0.45
		여아	77	11.17(2.03)	
		전체	132	11.11(2.10)	
	전체	남아	55	19.67(4.11)	-1.34
		여아	77	20.60(3.74)	
		전체	132	20.21(3.91)	

2. 부모의 놀이참여 양상

부모가 유아와 놀이하는 시간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하루 평균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은 2.5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놀이시간을 살펴본 선행연구(김명순 외, 2013; 이승미, 2015; 최혜순, 김찬숙, 2011)의 결과인 하루 평균 1.09시간, 0.61시간, 1.36시간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치이다. 연령에 따라 부모놀이참여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박은정, 이성림, 2013), 혼합연령 혹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이 연구의 대상이 어린 연령인 3세이므로 부모놀이참여 시간이 많은 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중 하루 평균 놀이참여시간은 .96시간, 2.28시간, 주말 하루 평균 놀이참여시간은 4.24시간, 5.50시간으로 나타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중보다는 주말에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놀이를 하면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중에는 유아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부모 또한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놀이유형 별 놀이참여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중에는 자녀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이야기 나누기, 책 읽기와 같은 실내놀이를 가장 많이 하며, 주말에는 산책, 자전거 타기, 공놀이하기와 같은 실외놀이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를 이용한 놀이참여시간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하루 평균 .54시간, .88시간으로 다른 놀이참여시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하루 평균 미디어 매체 이용시간이 2.79시간이라고 보고된 현황(조숙인, 권미경, 이민경, 2017)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치인데, 기존의 유아의 하루 평균 미디어 매체 이용시간은 유아 혼자서 매체를 사용한 시간도 포함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놀이를 위해 부모와 함께 사용한 시간만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Ⅴ-2> 부모의 놀이참여시간

단위 : 시간(*SD*)

		아버지	어머니	부모
주중	놀이시간	.96(.81)	2.28(1.49)	1.62(.91)
	매체	.32(.37)	.67(.67)	.49(.42)
	실내	.57(.56)	1.09(.85)	.83(.57)
	실외	.27(.64)	.75(.65)	.51(.46)
주말	놀이시간	4.24(3.02)	5.50(2.79)	4.87(2.27)
	매체	1.10(1.15)	1.39(1.24)	1.24(.96)
	실내	1.41(1.39)	2.00(1.57)	1.69(1.10)
	실외	2.08(1.96)	2.69(1.84)	2.38(1.69)
하루	놀이시간	1.90(1.22)	3.20(1.65)	2.55(1.12)
	매체	.54(.49)	.88(.76)	.71(.50)
	실내	.81(.70)	1.34(.94)	1.08(.65)
	실외	.79(.74)	1.30(.79)	1.05(1.12)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들과 하루 평균 놀이하는 시간이 주중, 주말, 하루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의 공유시간이 아버지와의 공유시간보다 더 많다는 선행연구(김명순 외, 2013; Kalenkoski, Ribar & Stratton, 2009)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Ⅴ-3>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 차이

단위 : 시간(*SD*)

	아버지	어머니	*t*
주중	.96(.81)	2.28(1.49)	3.98***
주말	4.24(3.02)	5.50(2.79)	9.57***
하루	1.90(1.22)	3.20(1.65)	8.15***

***$p < .001$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평균 점수는 3.21점(*SD* = .28)으로, 1점부터 4점까지의 놀이참여행동 척도 중 '약간 그렇다'에 해당하는 3점과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4점의 중간정도이다. 즉, 부모들은 자녀와의 놀이 시에 자녀의 흥미와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의 평균 점수는 3.26점(*SD* = .33)으로, 1점부터 4점까지의 놀이참여행동 척도 중 '약간 그렇다'에 해당하는 3점과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4점의 중간정도이다. 이는 부모들은 자녀와의 놀이 시에 자녀의 흥미와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고 자녀와의 놀이를 즐기는 편이며 자녀를 놀이로 잘 유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의 평균 점수는 2.24점(*SD* = .31)으로, 1점부터 4점까지의 놀이참여행동 척도 중 '약간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2점과 '약간 그렇다'에 해당하는 3점의 중간정도이다. 따라서 반응적 및 촉진적 놀이참여행동과 비교하여 부모의 지시적 놀이참여행동 수준은 보통인 편이며 놀이를 할 때,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주고 싶고 관련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행동 점수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응성과 촉진성의 점수는 유사하였고 지시성은 아버지가 더 높다고 한 선행연구(Kazura,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의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의 양육에 차이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Belsky, Bell, Bradley, Stallard & Stewart-Brown, 2006)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놀이참여행동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버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아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음 추측할 수 있으며 최근 30-40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김영란 외, 2015)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Ⅴ-4>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단위 : 점(*SD*)

	아버지	어머니	전체
반응성	3.16(.41)	3.25(.37)	3.21(.28)
촉진성	3.25(.52)	3.26(.44)	3.26(.33)
지시성	2.28(.44)	2.20(.46)	2.24(.31)

3. 부모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반응성, 촉진성, 지시성),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5>와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은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중 촉진성(r = .35, p < .001) 및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r = .26,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중 비지시성(r = -.22,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부모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를 즐기고 자녀의 놀이참여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촉진적 놀이참여행동 정도는 높고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개입하고 주도하는 지시적 놀이참여행동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3세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 중 반응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은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중 촉진성(r = .37, p < .001) 및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r = .22, p < .05)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중 지시성(r = -.30,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자녀와의 놀이에서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 행동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촉진적 행동반응을 많이 보이며 자녀의 놀이에 개입하고 주도하는 지시적 행동반응을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서 반응적인 행동반응을 많이 할수록 3세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기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아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Connell & Prinz, 2002)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중 촉진성은 지시성(r = -.21, p < .05)과 유의한

부적상관,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r = .19, p < .05)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고 놀이에 자녀를 효율적으로 참여시키는 촉진적 행동반응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놀이에 개입하고 주도적으로 이끄는 지시적 행동반응을 적게 하며 3세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또래관계기술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중 지시성은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지시적인 태도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Rose-Kransnor, 1996)와 흐름을 같이 한다.

<표 Ⅴ-5> 부모의 놀이참여시간, 놀이참여행동,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

		놀이참여 시간	놀이참여행동			또래관계 기술
			반응성	촉진성	지시성	
놀이참여시간		1				
놀이참여행동	반응성	.13	1			
	촉진성	.35***	.37***	1		
	지시성	-.22*	-.30***	-.21*	1	
또래관계기술		.26**	.22*	.19*	-.15	1

*p < .05. **p < .01. ***p < .001

4.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촉진적 놀이참여행동, 지시적 놀이참여행동 별로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1]. 이때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의 해결을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2]. 그 결과 변수 간 VIF는 1.02-1.28으로 10 미만이 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Hocking & Pendleton, 1983). 또한 또래관계기술 검사는 측정을 언어적 보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아의 언어이해능력을 통제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 통제변수인 언어이해능력을 투입한 후, 2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부모 놀이참여시간(A)을 투입하여 독립변수의 주효과를 살펴보았다. 이후, 3단계 모형에서 조절변수인 놀이참여행동(B)을 하위요인 별로 각각 투입하고 4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의 상호작용항(A*B)을 투입하여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우선 모형1에서는 통제변수로 설정한 언어이해능력을 투입하여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언어이해능력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Ⅴ-6>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27.33, p < .001), 언어이해능력이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2, p < .001). 이는 3세 유아의 언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기술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

1) 조절회귀분석은 한 변수 X가 다른 변수 Y를 예측하는 데 있어 조절변수 Z와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2) 조절회귀분석의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X*Z)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X와 Z간에는 상호관련성이 없어도 X와 X*Z 그리고 Z와 X*Z간에는 높은 상호관련성이 존재한다. 이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Aiken & West, 1991).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각 관찰치로부터 표본 평균을 차감함으로써 집중화 시킨 후, 상호작용항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점수는 편차점수로 표시되며 그 평균은 0이 된다(한인수, 2002).

모형 2는 언어이해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이다. 그 결과, <표 Ⅴ-6>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형 2는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을 2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7.21, p < .00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은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β = .20,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나서, 부모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신인숙, 이경애, 2005; 최혜순, 김찬숙, 2011; 한영숙, 200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영향과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6>과 같다.

앞서 실시한 모형 2에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 3에서는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3은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을 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3.63, p < .001). 또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β = .17, p < .05)과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β = .18, p < .05)이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 많고 놀이상호작용 중 반응적인 행동반응을 많이 할수록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형4는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이 놀이참여시간과 상호작용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4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F = 11.72. p < .001)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참여시간과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β = -,18, p < .05)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투입된 모형 3에 비해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포함된 모형 4의 설명력이 3%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의수준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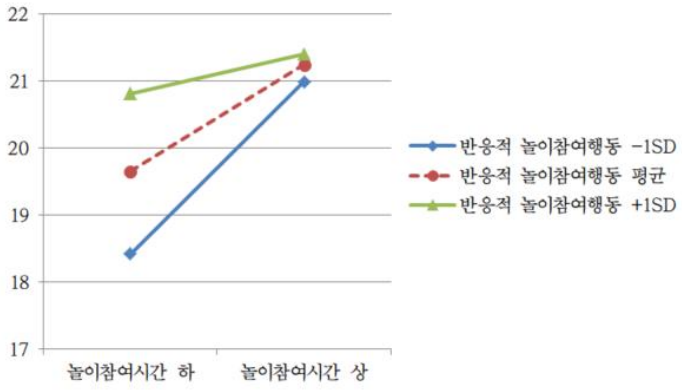
<표 Ⅴ-6>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N = 132)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언어	.28	.42***	.26	.38***	.26	.38***	.25	.37***
독립변수	놀이참여시간			.68	.20*	.60	.17*	.88	.25**
조절변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2.46	.18*	2.60	.19*
상호작용변수	놀이참여시간 *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1.93	-.18*
R^2(adj-R^2)		.17(.17)		.21(.20)		.24(.22)		.27(.25)	
R^2 변화량								0.03***	
F		27.33***		17.21***		13.63***		11.72***	

*p < .05. **p < .01. ***p < .001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점수의 평균값과 ±1SD 값에서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였다(Aiken & West, 1991). 그 결과, <그림 Ⅴ-1>과 같이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수준이 낮은 경우에 놀이참여시간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적은 경우에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수준이 높으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조절변인이 평균값과 ±*1SD* 값을 가질 경우,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식 기울기에 대한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Ⅴ-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이 낮은 집단(B = 1.43, p < .01)과 중간 집단(B = .88, p < .01)의 경우에 유의하였고, 중간 수준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집단은 낮은 수준의 집단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 정도가 감소하였다.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B = .33, *n.s.*)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유아의 흥미와 관심, 행동에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있다면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7>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의 조건값에 따른 회귀계수 검증

조절변인		*B*	*SE*	t
반응적 놀이참여행동	−1*SD*	1.43	.46	3.07**
	평균	.88	.30	2.93**
	+1*SD*	.33	.30	1.10

**p < .01

2)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부모의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의 영향과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모형 3에서는 촉진적 놀이참여행동 변수를 추가하여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3은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을 2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2.48, p < .00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은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5, *n.s.*, β = .13, *n.s.*). 이는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교되는 결과이다.

모형4는 부모의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이 놀이참여시간과 상호작용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4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F = 9.50, p < .001)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의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β = -.06, *n.s.*)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촉진적인 놀이참여행동은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지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시간동안 놀이를 할 때, 부모가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을 보여준다고 해서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고영실, 부정민, 2009; 김경은, 201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고 유아의 주의, 협력, 참여를 이끌어내는 놀이참여행동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와의 놀이에서 부모의 촉진적인 행동반응은 자칫 부모-주도적 놀이가 될 수 있으며, 부모가 주도하는 놀이보

다 유아의 내적동기에 의한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rson, & Rusk, 2011). 그러므로 부모 자신이 놀이를 즐기거나 놀이 방법을 고안하여 자녀를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유아의 내적 동기에 의해 유아 주도적으로 놀이가 이루어지고 부모는 이에 반응해줄 때,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표 Ⅴ-8>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촉진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N = 132)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언어	.28	.42***	.26	.38***	.26	.39***	.26	.39***
독립변수	놀이 참여시간			.68	.20*	.51	.15	.55	.16
조절변수	촉진적 놀이 참여행동					1.61	.13	1.52	.13
상호작용변수	놀이참여 시간 * 촉진적 놀이 참여행동							-.65	-.06
R^2(adj-R^2)		.17(.17)		.21(.20)		.23(.21)		.23(.21)	
R^2 변화량									
F		27.33***		17.21***		12.48***		9.50***	

*p < .05. **p < .001

3)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부모의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의 영향과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9>와 같다.

모형 3에서는 지시적 놀이참여행동 변수를 추가하여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3은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을 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2.04, p < .001).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은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β = .17, p < .05),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은 3세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0, *n.s.*). 자녀와의 놀이에서 부모가 놀이를 이끌고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반응은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4는 부모와의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이 놀이참여시간과 상호작용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 4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F = 9.09, p < .001)으로 나타났다. 놀이참여시간과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의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 .05, *n.s.*). 부모의 지시적인 놀이참여행동의 수준에 따라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지시적이고 주도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적 참여, 요구전략과 같은 사회적 유능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Rose-Krasnor, 1996)와 흐름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것을 놀이를 통해 주변을 탐색하고 관찰하면서 자발적으로 배우게 된다(Blasi et al., 2002). 이처럼 유아에게 자연스러운 삶과 같은 놀이에서 부모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유아의 자발적인 배움을 통한 성장에 도움이 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Matte-Gagné, Harvey, Stack, & Serbin, 2015)를 비추어 보았을 때, 놀이에서 부모가 놀이의 방법이나 참여를 지시하거나 놀이 속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보다는 유아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놀이를 유아가 주도해나가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표 Ⅴ-9>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시적 놀이참여행동의 조절효과

(N = 132)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언어	.28	.42***	.26	.38***	.26	.38***	.26	.39***
독립변수	놀이참여시간			.68	.20*	.60	.17*	.65	.18*
조절변수	지시적 놀이 참여행동					-1.26	-.10	-1.26	-.10
상호작용변수	놀이참여시간 * 지시적 놀이 참여행동							.53	.05
R^2(adj-R^2)		.17(.17)		.21(.20)		.22(.20)		.22(.20)	
R^2 변화량									
F		27.33***		17.21***		12.04***		9.09***	

*p < .05. ***p < .001

Ⅵ.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유아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와의 놀이경험이 어린이집 등 기관 생활에서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본격화되는 3세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모의 놀이참여에 대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머니의 놀이참여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함께 포함하여 살펴보았으며, 부모의 놀이참여를 양적 측면인 놀이참여시간과 질적 측면인 놀이참여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북, 경남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13곳의 3세 유아 132명과 해당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 132명씩, 총 26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에게는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또래와의 놀이 상황을 그림과 함께 이야기로 들려준 후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질문하여 또래관계기술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부모에게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참여행동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ATA 13.0 프로그램과 SPSS용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모가 3세 유아와 놀이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5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보다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김명순 외, 2013; 이승미, 2015)에서 나타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치였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에 차이가 있다(박은정, 이성림, 2013)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조사대상 유아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린 편이기 때문에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다소 많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령에 비해 3세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시간이 많으므로 놀이에서 부모가 적절

한 놀이참여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부모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놀이참여의 양적 측면을 반영하는 시간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부모와 공유하는 시간이 많고 특히 놀이를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최혜순, 김찬숙, 2011; 한영숙, 2006)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유아가 가정에서 부모와 놀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와의 다양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유아가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중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 놀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녀의 흥미와 관심, 행동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해줄수록 유아의 또래관련기술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유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Landry와 그 동료들(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놀이를 할 때, 유아에 대해서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부모 놀이참여시간의 영향에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반응적 놀이참여행동이 높아질수록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즉, 부모가 자녀와 놀이 상호작용을 할 때 유아의 관심과 행동에 충분히 반응하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부모 놀이참여시간의 영향이 상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절효과는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에서 반응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놀이시간의 부족을 놀이상호작

용의 질적 측면이 보완해주는 것이다. 어린 자녀와 함께 놀이할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의 경우, 반응적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부모교육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을 위해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부모의 놀이참여행동 중 촉진적 참여행동과 지시적 참여행동은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주효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놀이를 제안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 시 부모가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과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반응적 놀이참여행동과 달리 별다른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동이 내적동기에 의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할 때, 그 활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난다(Larson & Rusk, 2011; Matte-Gagné et al., 2015)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의 내적동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유아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이에 부모가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가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자녀와 놀이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세 유아에게 놀이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발적인 배움을 갖게 된다(Blasi et al., 2002). 이처럼 유아의 놀이는 능동적이며 스스로 행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유아와 부모의 놀이가 유아의 내적 동기에 기반한 자발적인 놀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3세는 이후 사회적 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

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긍정적 또래관계를 위한 적절한 또래관계기술 습득이 중요하다. 그러나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부모의 놀이참여 정도만 살펴본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유아와 놀이하는 시간의 양 뿐만 아니라 부모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놀이참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상호작용에 대한 제언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모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록 어린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의 양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놀이를 하는 동안 부모가 유아의 관심, 흥미와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아의 또래관계기술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을 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부족한 현대 사회의 부모에게 부모 놀이참여의 질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동안 부모의 행동반응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경험한 부모와의 놀이경험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아버지와의 놀이경험과 어머니와의 놀이경험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했다. 이는 간편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질문지 응답을 통해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부모와 유아 간의 놀이상호작용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놀이 상황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한 자료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또래관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3세 유아의 또래관계기술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부모 놀이참여의 효과를 놀이시간과 놀이참여행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부모-자녀 간 놀이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시간 부족으로 고민하는 현대 사회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영실, 부정민 (2009).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4*(1), 95-112.

권희경 (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4), 79-98.

김경은 (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3.

김수희 (2015).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17*(3), 1-28.

김영옥, 윤경선 (1999). 친사회적 토의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307-324.

김정미, 곽금주 (2006). 취학 전 아동과 부모 간의 상호작용 행동 평가를 위한 K-MBRS 와 K-CBRS 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21-37.

_____, 임희선 (2014). 부모 상호작용행동 검사 (IBSP) 와 아동 상호작용행동 검사 (IBSC) 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34*(4), 441-464.

김지현, 정지나 (2011). 유아의 위축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15-24.

_____, 한준아, 조윤주 (2015).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유능감, 역할만족도,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유아의 정서조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4), 463-476.

도남희, 김정숙, 하민경 (2013). *영유아생활시간조사*(연구보고 2013-10).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류희정,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2), 47-64.
문병환, 김세루 (2011). 아버지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유아의 셀프리더십 및 유치원 적응력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97-113.
박선영 (2012). 유아의 놀이성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14*(1), 129-152.
박영아 (2010).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65*, 1-17.
박영애, 김리진 (2011). 유아기 및 아동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관련 인식 기초조사.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4*(2), 37-56.
박은정, 이성림 (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97-111.
박혜원, 이경옥, 안동현 (2015).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4판 (K-WPPSI-IV)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서미옥 (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신인숙, 이경애 (2005).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놀이참여 형태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과학논집, 31*, 99-114.
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7 유아교육 보육 주요통계*(연구자료 2018-0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경진, 신수진, 김희태 (2017). 만 2 세 영아의 왜?라는 언어 사용에 대한 의미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21*(1), 509-531.
이숙재 (1984). 幼兒의 想像놀이와 諸變因과의 關係硏究.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 143-150.
이승미 (2015). *부모-자녀 놀이 및 사교육 현황과 유아의 인식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영석, 성영화 (2006). 부모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도 및 일치도와 유아 감성지능과의 관계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37-159.
장영숙, 강경석, 김희정 (2003).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4*(4), 41-53.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조숙인, 권미경, 이민경 (2017).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연구보고 2017-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이윤진, 김세현, 나지혜 (2012). *아동발달관점에서 본 육아지원지관 이용시간 고찰: 스트레스호르몬 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012-09). 육아정책연구소.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117-133.
김영란, 주재선, 김난주, 최진희 (2015). *생활시간조사를 통해본 가족시간 변화 추이 분석 연구*(연구보고 2015-66). 서울: 여성가족부.
한영숙 (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한인수 (2002). 조절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력에 대한 연구.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3,* 143-161.
Abdi, B. (2010).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kills, problem behaviours and academic competence of Iranian kindergarten children based on their parent and teacher rating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1175-1179.
Adamsons, K. (2018). Quantity versus quality of nonresident father involvement: Deconstructing the argument that quantity doesn't matter. *Journal of Child Custody, 15*(1), 26-34.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Amato, P. R., & Gilbreth, J. G. (1999). Nonresident fathers and

children's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557-573.

Ashiabi, G. S. (2007). Play in the preschool classroom: Its socioemotional significance and the teacher's role in pla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5*(2), 199-207.

Axia, G., & Baroni, M. R. (1985). Linguistic politeness at different age levels. *Child Development, 56*(4), 918-927.

Baird, S. M., Haas, L., McCormick, K., Carruth, C., & Turner, K. D. (1992). Approaching an objective system for observation and measurement: Infant-Parent Social Interaction Cod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2*(4), 544-571.

Baruch, G. K., & Barnett, R. C. (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7*(5), 1210-1223.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edell, J. R., & Lennox, S. S. (1997). *Handbook for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Vol. 14).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Belsky, J. (2001). Emanuel Miller Lecture: Developmental risks (still) associated with early child care.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7), 845-859.

_____, Bell, B., Bradley, R. H., Stallard, N., & Stewart-Brown, S. L. (2006). Socioeconomic risk, parenting during the preschool years and child health age 6year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7*(5), 508-513.

_____, Rovine, M., & Taylor, D. G. (1984).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71), 718-728.

Bierman, K. L., Torres, M. M., Domitrovich, C. E., Welsh, J. A., & Gest, S. D. (2009). Behavioral and cognitive readiness for school: Cross domain associations for children attending Head Start. *Social Development, 18*(2), 305-323.

Blasi, M., Hurwitz, S. C., & Hurwitz, S. C. (2002). For parents particularly: To be successful—let them play!. *Childhood Education, 79*(2), 101-102.

Bocknek, E. L., Brophy-Herb, H. E., & Banerjee, M. (2009). Effects of parental supportiveness on toddlers' emotion regulation over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in a low income African American sampl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Official Publication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30*(5), 452-476.

Booth, C. L., Clarke-Stewart, K. A., Vandell, D. L., McCartney, K., & Owen, M. T. (2002). Child care usage and mother infant "quality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16-26.

Bono, E. D., Francesconi, M., Kelly, Y., & Sacker, A. (2016). Early maternal time investment and early child outcomes. *The Economic Journal, 126*(596), F96-F135.

Caldarella, P., & Merrell, K. W. (1997). Common dimensions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taxonomy of positive behaviors. *School Psychology Review, 26*(2), 264-278.

Carlson, M. J. (2006). Family structure, father involvement, and adolescent behavioral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137-154.

Cillessen, A. H., & Bellmore, A. D. (2010). Social skills and social competence in interactions with peers. In P. K. Smith & C. H. Hart (Eds.).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393-412). Chichester, WS: Wiley-Blackwell.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 - 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Clark, R., Menna, R., & Manel, W. S. (2013). Maternal scaffolding and children's social skills: A comparison between aggressive preschoolers and non-aggressive preschoo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5), 707-725.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Connell, C. M., & Prinz, R. J. (2002). The impact of childcare and parent - child interactions on school readiness and social skills development for low-income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2), 177-193.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465.

Crawford, A. M., & Manassis, K. (2011). Anxiety, social skills, friendship quality, and peer victimization: An integrated model.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7), 924-931.

Damast, A. M.,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6). Mother child play: Sequential interactions and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belief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7*(4), 1752-1766.

Deković, M., Gerris, J. R., & Janssens, J. M. (1991). Parental cognitions, parental behavior, and the child's understanding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Merrill-Palmer Quarterly, 37*(4), 523-541.

Demir, M., Jaafar, J., Bilyk, N., & Mohd-Ariff, M. R. (2012). Social skills, friendship and happiness: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3), 379-385.

Denham, S. A. (2006). Social-emotional competence as support for school readiness: What is it and how do we assess i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57-89.

_____, Renwick, S. M.,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 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 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2), 242-249.

DeRosier, M. E.,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 (1994). Children's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the chronicity and proximity of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5*(6), 1799-1813.

Eisenberg, N., and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and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Vol. 3, pp. 701-778). New York: Wiley.

Elicker. J, Engla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Fantuzzo, J., & McWayne, C.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play interactions in the family context and dimensions of school readiness for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1), 79-87.

_____, Sekino, Y., & Cohen, H. L. (2004). An examination of the contributions of interactive peer play to salient classroom competencies for urban head start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41*(3), 323-336.

Fiorini, M., & Keane, M. P. (2014). How the allocation of children's time affects cognitive and non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32*(4), 787-836.

Flouri, E. (2004). Subjective well-being in midlife: The role of involvement of and closeness to parents in childhood.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4), 335-358.

_____, & Buchanan, A. (2003).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ce, 26*(1), 63-78.

Fomby, P., & Musick, K. (2018). Mothers' Time, the Parenting Package, and Links to Healthy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1), 166-181.

Fox, C. L., & Boulton, M. J. (2006). Friendship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kills problems and peer victimisation.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2*(2), 110-121.

Gagnon, S. G., Huelsman, T. J., Reichard, A. E., Kidder-Ashley, P., Griggs, M. S., Struby, J., & Bollinger, J. (2014). Help me play! Parental behaviors, child temperament, and preschool peer pla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5), 872-884.

Gaunt, R. (2005). The role of value priorities in paternal and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643-655.

Ginsbu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1), 182-191.

Greco, L. A., & Morris, T. L. (2005). Factors influencing the link between social anxiety and peer acceptance: Contributions of social skills and close friend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Behavior Therapy, 36*(2), 197-205.

Gresham, F. M., & Elliott, S. N. (2008). *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Rating scales manual*. Minneapolis, MN: NCS Pearson.

_____, Elliott, S. N., Vance, M. J., & Cook, C. R. (2011). Comparability of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to the 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Content and psychometric comparisons across elementary and secondary age level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6*(1), 27-44.

_____, & Reschly, D. J. (1987). Dimensions of social competence: Method factors in the assessment of adaptive behavior, social skills, and peer accepta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5*(4), 367-381.

Grusec, J. E., Goodnow, J. J., & Cohen, L. (1996). Household work and the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999-1007.

Haight, W. (1998). Adult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play. In D. P. Fomberg & D. Bergen (Eds.). *Play from birth to twelve and beyond: Contexts, perspectives and meanings* (pp. 259-265). New York. NY: Garland Publishing.

Hampton, V. R., & Fantuzzo, J. W. (2003). The validity of 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with urban, low-income kindergarten children. *School Psychology Review, 32*(1), 77.

Harper, L. V., & Huie, K. S. (1985). The effects of prior group experience, age, and familiarity on the quality and organization of preschooler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3), 704-717.

Harris, K. M., Furstenberg, F. F., & Marmer, J. K. (1998). Paternal involvement with adolescents in intact families: The influence of fathers over the life course. *Demography, 35*(2), 201-216.

Hartman, C. A., Rhee, S. H., Willcutt, E. G., & Pennington, B. F. (2007). Modeling rater disagreement for ADHD: Are parents or teachers biase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4), 536-542.

Hartup, W. W., & Moore, S. G. (1990). Early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significance and prognostic implica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1), 1-17.

Hastings, P. D., Utendale, W. T., & Sullivan, C. (2007). The socialization of prosocial development. In J. E. Grusec & P. D.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 638-664).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Hawkins, A. J., & Eggebeen, D. J. (1991). Are fathers fungible? Patterns of coresident adult men in maritally disrupted families and young children's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958-972.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 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Healey, D. M., Gopin, C. B., Grossman, B. R., Campbell, S. B., & Halperin, J. M. (2010). Mother - child dyadic synchrony is associated with better functioning in hyperactive/inattentive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9), 1058-1066.

Henry, M. (1990). More than just play: The significance of mutually directed adult child activit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0*(1), 35-51.

Hocking, R. R., & Pendleton, O. J. (1983). The regression dilemma. *Communications in Statistics-Theory and Methods, 12*(5), 497-527.

Horowitz, J. A., Bell, M., Trybulski, J., Munro, B. H., Moser, D., Hartz, S. A., McCordic, L., & Sokol, E. S. (2001). Promoting responsiveness between mother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their infa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4), 323-329.

Hsin, A. (2009). Parent's time with children: Does time matter for children's cognitive achiev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1), 123-126.

Hughes, F. P. (Ed.). (2009). *Children, play, and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John, A., Halliburton, A., & Humphrey, J. (2013). Child - mother and child - father play interaction patterns with preschoo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3-4), 483-497.

Johnson, J. E., Christie, J. F., & Wardle, F. (2005).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Boston, MA: Allyn and Bacon.

Kalenkoski, C. M., Ribar, D. C., & Stratton, L. S. (2009). The influence of wages on parents' allocations of time to child care and market work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2), 399-419.

Kazura, K. (2000). Father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volvement: An investigation of attachment, play, and social interactions.

The Journal of Men's studies, 9(1), 41-57.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5), 1579-1601.

_____,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_____, Price, J. M., & Hart, C. H. (1990). Preschoolers'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atterns of peer contact: Predictive of peer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 90-115). New York, NY: Cambridge.

Laible, D., Thompson, R. A., & Froimson, J. (2007). Early socialization. In J. E. Grusec & P. D.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 35-59).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Lamb, M. E.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An overview.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23-42.

_____ (2010). How do fathers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Let me count the way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1-26). Hoboken, NJ: John Wiley & Sons.

_____, Pleck, J. H., & Levine, J. A. (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The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B. B.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8, pp. 229-266). New York, NY: Plenum Press.

Landry, S. H., Smith, K. E., Miller-Loncar, C. L., & Swank, P. R. (1998). The relation of change in maternal interactive styles to

the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of full-term and pre-term children. *Child Development, 69*, 105-123.

Lareau, A., & Weininger, E. B. (2008). Time, Work, and Family Life: Reconceptualizing Gendered Time Patterns Through the Case of Children's Organized Activities. *Sociological Forum, 23*(3), 419-454.

Larson, R. W., & Rusk, N. (2011). Intrinsic motivation and positive development.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41,* 89-130.

Levin, E., & Rubin, K. H. (1983). Getting others to do what you want them to do: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requestive strategies. *Children's language, 4*, 157-186.

Lindsey, E. W., Cremeens, P. R., & Caldera, Y. M. (2010). Mother - child and father - child mutuality in two contexts: Consequences for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9*(2), 142-160.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_____,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 E. M. Hea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NY: Wiley.

MacDonald, K. (Ed.). (1993). *Parent-child play: Descriptions and implications*. New York, NY: SUNY Press.

_____,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Mashburn, A. J., Pianta, R. C., Hamre, B. K., Downer, J. T., Barbarin, O. A., Bryant, D., Burchinal, M., Early, D. M., & Howes, C. (2008). Measures of classroom quality in prekindergarten and children's development of academic, language, and social skills. *Child development, 79*(3), 732-749.

Matte-Gagné, C., Harvey, B., Stack, D. M., & Serbin, L. A. (2015). Contextual specific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from preschool to pre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8), 1528-1541.

McCabe, P. C., & Marshall, D. J. (2006). Measuring the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orrespondence among informant ratings and behavioral observation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6*(4), 234-246.

McGinnis, E., & Goldstein, A. P. (1990). *Skillstreaming in early childhood: Teaching prosocial skills to 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 Champaign, IL: Research Press.

McWayne, C. M., Fantuzzo, J. W., & McDermott, P. A. (2004). Preschool competency in context: an investigation of the unique contribution of child competencies to early academic success. *Developmental psychology, 40*(4), 633-645.

Meagher, S. M., Arnold, D. H., Doctoroff, G. L., Dobbs, J., & Fisher, P. H. (2009). Social - emotional problems in early childhood and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symptoms in school-age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1), 1-24.

Merrell, K. W., & Gimpel, G. (2014).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treatment*.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Milkie, M. A., Kendig, S. M., Nomaguchi, K. M., & Denny, K. E. (2010). Time with children, children's well being, and work family balance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329-1343.

Miller, E., & Almon, J. (2009). Crisis in the kindergarten: Why children need to play in school. *Education Digest: Essential Readings Condensed for Quick Review, 75*(1), 42-45.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a). Does amount of time spent in child care predict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4*(4), 976-1005.

_____ (2003b). Early child care and mother - child interaction from 36 months through first grad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6*(3), 345-370.

Parke, R. D. (1981). *Father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leck, J. H. (2010). Paternal involvement: revised conceptualization and theoretical linkages with child outcomes. In M. E. Lamb(Ed).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58-93). New York: John Willey.

_____, & Masciadrelli, B. P. (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S residential fathers: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pp. 222-271). New York, NY: Wiley.

Prinstein, M. J., Rancourt, D., Guerry, J. D., & Browne, C. B. (2009). Peer reputation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K. H.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 (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 548-567). New

York, NY: Guilford.

Prinz, P. (1982). 'Requesting' in normal and language-disordered children. *Children's Language, 3*, 139-203.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Rohner, R. P., & Veneziano, R. A. (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405.

Rose-Krasnor, L. (1996). The relation of maternal directiveness and child attachment security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09-326.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Vol. 3, pp. 571-645).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Salem, D. A., Zimmerman, M. A., & Notaro, P. C. (1998). Effects of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father involvement on psychosocial outcome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47*(4), 331-341.

Schneider, B. H., Atkinson, L., & Tardif, C. (2001). Child - parent attachment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A quantitative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86-100.

Segrin, C. (2000). Social skills deficits associated with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3), 379-403.

_____, & Taylor, M. (2007).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4), 637-646.

Selman, R. L., & Schultz, L. H. (1990). *Making a friend in youth: Developmental theory and pair therap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haffer, D. (200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Belmont, CA: Wodsworth.

Shulman, S., Elicker, J., & Sroufe, L. A. (1994). Stages of friendship growth in preadolescence as related to attachment histor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3), 341-361.

Smilansky, S., & Shefatya, L. (1990). *Facilitating play: A medium or promoting cognitive, socio-emotional and academic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Gaithersburg, MD: Psychosocial & Educational.

Stevenson, M. B., Leavitt, L. A., Thompson, R. H., & Roach, M. A. (1988). A Social Relations Model analysis of parent and child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01-108.

Trautmann-Villalba, P., Laucht, M., & Schmidt, M. H. (2006). Father negativity in the interaction with toddlers as predictor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girls and boys at school age. *Praxis der Kinderpsychologie und Kinderpsychiatrie, 55*(3), 169-180.

Trawick-Smith, J. (1992). A descriptive study of persuasive preschool children: How they get others to do what they wa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1), 95-114.

Vandell, D. L., & Mueller, E. C. (1980). Peer play and friendships during the first two years. In H. C. Foot, A. J. Chapman, & J. R. Smith (Ed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pp. 181-208). New Brunswick, NJ: Philip Erwin.

Veneziano, R. A. (2003). The importance of paternal warmth. *Cross-cultural research, 37*(3), 265-281.

Walker, S.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3), 297-312.

_____, Irving, K., & Berthelsen, D. (2002). Gender influences on preschool children's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3*(2), 197-209.

Webster-Stratton, C., & Reid, M. J. (2004). Strengthening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The foundation for early school readiness and success: Incredible Years Classroom Social Skills and Problem-Solving Curriculum. *Infants & Young Children, 17*(2), 96-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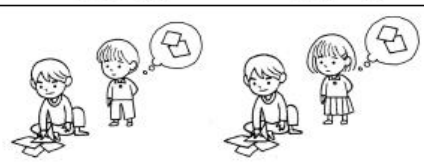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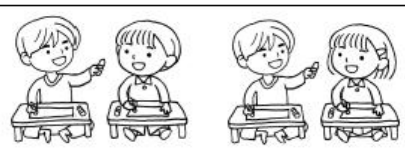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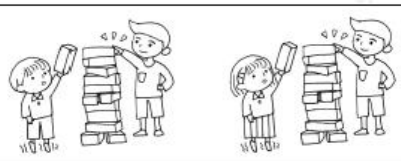
Weinfield, N. S., Ogawa, J. R., & Egeland, B. (2002). Predictability of observed mother - child interaction from preschool to middle childhood in a high risk sample. *Child Development, 73*(2), 528-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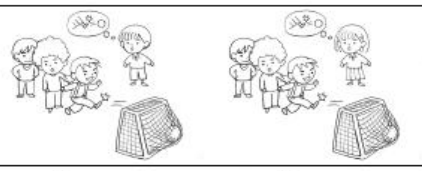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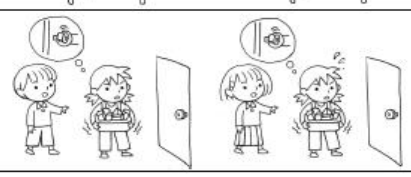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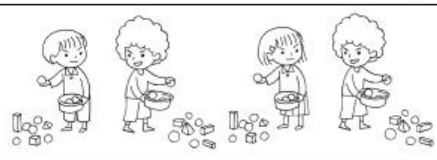
Williams, D. E., & Schaller, K. A. (1993). Peer persuasion: A study of children's dominance strategi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8*(1), 31-41.

Woodward, L. J., & Fergusson, D. M. (2000). Childhood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later risks of educational under-achievement and unemployment.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2), 191-201.

Ziv, Y. (2013).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s, social skills, and school readiness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4*(2), 306-320.

<부록1> 또래관계기술 상황의 내용 및 그림

기초 사회 기술	
문항	**그림**
1. 듣기 : 친구가 주말에 있었던 일을 빨강이에게 이야기해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아용> <여아용>
2. 좋은 말 사용하기 : 빨강이가 종이접기를 하고 싶어요. 색종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빌리려고 해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주장하기 : 빨강이가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친구가 장난감 차를 뺏었어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고맙다고 말하기 : 빨강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파란색 크레파스가 없어요. 친구가 파란색 크레파스를 빌려줘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칭찬하기 : 빨강이와 친구들이 멋있는 블록 집을 만들었어요. 빨강이는 그 집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도움 요청하기 : 빨강이가 친구랑 벽돌 블록 쌓기를 하고 있어요. 빨강이한테는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아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호의를 부탁하기 : 빨강이는 친구가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싶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서 빨강이가 볼 수 없어요. 이 때, 빨강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설득하기 : 빨강이가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옆의 친구가 자꾸 장난을 쳐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래 사귀기 기술	
문항	그림
9. 인사하기 : 빨강이가 바깥놀이터를 갔어요. 4살이었을 때 같은 반 친구를 만나 반가워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아용> <여아용>
10. 상대방 감정 읽기 :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참여하기 : 친구들이 기찻길 만들기를 하면서 놀아요. 빨강이도 같이 놀고 싶어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 차례 기다리기 : 친구들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골대에 공 넣기 놀이를 해요. 빨강이도 하고 싶어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 공유하기 : 빨강이가 냠냠이(음식장난감)을 가지고 부엌놀이를 해요. 친구도 냠냠이를 가지고 놀고 싶어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 도와주기 : 친구가 물건을 많이 들고 있어요. 빨강이가 친구가 문을 열지 못하는 걸 봐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 함께 놀자고 제안하기 : 빨강이가 혼자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옆에 혼자 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때, 빨강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 공정하게 게임하기 : 빨강이가 친구랑 구슬 더 많이 모으기 게임을 해요. 빨강이는 친구보다 더 많은 구슬을 모아서 이기고 싶어요. 이 때, 빨강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록 2> 부모용 질문지

IRB No. 1809/002-011 **유효기간: 2019년 9월 9일**

ID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 문 지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예진입니다.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 협조해 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질문지는 **평소 부모님의 자녀와의 놀이참여(시간, 상호작용), 놀이에 대한 생각과 유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맞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평소 자녀의 모습과 놀이를 할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질문 내용에 따라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으며, 학문적인 목적 외에는 어떤 곳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모님의 솔직한 답변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셔야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끝까지 잘 읽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아버지용 설문지
② 어머니용 설문지
아버지용은 아버지, 어머니용은 어머니께서 직접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질문지는 자녀가 등원할 때 담임교사에게 밀봉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8년 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유 예 진 올림

지도교수 : 이 강 이

IRB No. 1809/002-011 유효기간: 2019년 9월 9일

ID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용 설문지

본 설문지는 아버지용으로 **아버지께서 직접**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는 **평소 자녀와의 놀이 시간과 놀이를 할 때 아버지의 생각 및 행동과 유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맞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평소 자녀의 모습과 놀이를 할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질문 내용에 따라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으며, 학문적인 목적 외에는 어떤 곳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모님의 솔직한 답변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셔야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끝까지 잘 읽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질문지는 자녀가 등원할 때 담임교사에게 밀봉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8년 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유 예 진 올림

지도교수 : 이 강 이

◎ 다음은 아버지의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참고>를 읽으시고 **평소 생활과 가까운 날을 떠올리신 후** 각 질문에 시간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번~2번).
◎ 아래 질문에서 나오는 **"자녀"란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말합니다. **모든 자녀가 아닌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와의 시간으로 한정하여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일상 활동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씻기, 옷 갈아입기) 등
놀이	장난감 가지고 놀기, 장난감 없이 놀기(이야기 나누기, 숨바꼭질), 바깥놀이(산책, 놀이터, 자전거, 공놀이 등), 책 읽기, 예술경험 활동(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 매체이용 놀이(TV시청, 핸드폰·게임기·컴퓨터 등을 이용한 게임), 기타 놀이
학습 활동	학습지 활동, 온라인 학습, 학원 및 기관 과제 활동 등
나들이	공연 및 스포츠 관람, 체험활동, 종교 활동 등
이동하기	기관 경험 전후 이동(등·하원을 위한 이동), 학습 활동 관련 이동 등

<참고: 자녀와의 놀이의 예>

- 함께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하기(혼자 텔레비전 보기는 아님)
- 산책, 운동 등을 함께 하기(혼자 놀이터에서 놀게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지만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준다거나 상호작용을 함께 하는 것은 포함될 수 있음)
- 목욕하며 물놀이하기, 함께 요리하기(단순히 씻기고,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 등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은 아님)
- 책 읽어주기(혼자 책을 읽게 하거나 학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

1. **평일**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1-1. **평일**에 아버지께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ex. 일상 활동, 놀이, 학습 활동, 나들이, 이동하기 등)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1-2. **평일**에 아버지께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중 **놀이하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세부 놀이 시간	
● 자녀와 함께 **매체이용 놀이**를 하는 시간 (ex. TV시청, 핸드폰·게임기·컴퓨터 등을 이용한 게임)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자녀와 함께 **실내 놀이**를 하는 시간 (ex. 장난감 가지고/없이 놀기, 책 읽기, 예술경험 활동 등)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자녀와 함께 **바깥놀이**를 하는 시간 (ex. 산책, 놀이터, 자전거, 공놀이 등)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2.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2-1.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ex. 일상 활동, 놀이, 학습 활동, 나들이, 이동하기 등)

토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일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뒷장 계속(1/6)

2-2.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중 **놀이하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토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일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세부 놀이 시간	
• 자녀와 함께 **매체이용 놀이**를 하는 시간	토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ex. TV시청, 핸드폰·게임기·컴퓨터 등을 이용한 게임)	일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자녀와 함께 **실내 놀이**를 하는 시간	토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ex. 장난감 가지고/없이 놀기, 책 읽기, 예술경험 활동 등)	일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자녀와 함께 **바깥놀이**를 하는 시간	토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ex. 산책, 놀이터, 자전거, 공놀이 등)	일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아래의 질문은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와 놀이 시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날의 자녀와 놀이상황을 떠올리시며** 각 질문을 읽으시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1번~21번).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주로 내가 주도하는 편이다.				
2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신체적 높이를 낮춘다.				
3	나는 아이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못마땅해서 바로 잡아주고 싶다.				
4	나는 아이가 잘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해준다 (예: "와", "잘하고 있어" 등)				
5	나는 아이가 나타내는 신호, 비언어적 요구 등 작은 행동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6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가 주도하는 것에 따르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활동을 반복하며 유지한다.				
7	나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이 아이가 하는 방법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대로 따라주길 바라는 편이다.				
8	나는 아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지켜보기만 하는 편이다.				
9	나는 아이와 장난감 없이 놀이를 하라면 막막할 것이다.				
10	아이와 놀이할 때, 아이보다 내가 하는 말이 더 많은 편이다.				
11	나는 아이와 함께 놀이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12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13	사실 나는 아이의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뒷장 계속(2/6)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아이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매우 딱딱하고 냉랭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15	내가 질문한 것에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반응할 때까지 요구한다.				
16	나는 아이의 행동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예: 칭찬, 격려의 말 등)				
17	나는 아이에게 내 의도대로 하도록 이끌지 않는다.				
18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만지는 것이나 보고 있는 곳을 함께 쳐다본다.				
19	나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예: 얼굴표정, 언어표현, 제스처 등) 즉각적으로 반응해준다.				
20	나는 아이와 놀이할 때, 아이가 그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도록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한다.				
21	나의 목소리 톤은 밋밋하고 아이와 놀이할 때에도 변함이 없다.				

◎ 아래의 질문은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와의 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을 읽으시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라며 해당란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1번~30번).

문항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놀이는 아이가 협력하기, 친구 사귀기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2	놀이는 아이가 셈하기, 문자인식과 같은 학습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4	나는 내 아이와 놀 때, 정말 즐겁다.					
5	아이가 언어와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놀이가 도움이 된다.					
6	나는 아이와 함께 놀기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주는 편이다.					
7	나는 놀이를 하며 내 아이에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8	놀이는 아이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나는 놀이를 하는 동안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10	가정에서의 놀이는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뒷장 계속(3/6)

문항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1	내가 아이와 놀아 준다면, 내 아이는 놀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12	놀이는 내 아이의 사고력 신장을 도울 수 있다.					
13	내 아이에게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 것보다 좋은 학습 기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14	우리 집에서는 놀이시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15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16	내가 아이와 놀이시간을 가진다면, 아이는 친구들과 더 잘 놀게 될 것이다.					
17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함께 놀아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18	내 아이는 나와 놀이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19	나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형제, 조부모, 배우자 등)이 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	아이는 나 없이 혼자 놀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21	아이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데 놀이가 도움이 된다.					
22	취학 전 자녀와의 놀이는 문자나 숫자를 가르치는 것보다 유익하다.					
23	놀이는 내 아이에게 즐거운 행동이다.					
24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은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					
25	나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중요한 기술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6	아이는 놀이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7	내 아이는 놀이하는 동안 지나치게 흥분한다.					
28	내 아이는 나와 함께 놀 때, 정말 즐거워한다.					
29	아이는 놀이를 하며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킨다.					
30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는 아이의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뒷장 계속(4/6)

◎ 다음은 **자녀의 기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의 내용이 **자녀의 평소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생각하셔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각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1번~20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2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3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4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5	우리 아이는 잘 운다.					
6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7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8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9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0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11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12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13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14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15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16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17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 좋아한다.					
18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귄다.					
19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20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뒷장 계속(5/6)

◎ 다음은 **가정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1번~5번).

1. 귀하의 **나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만 _____세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____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____②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____③ 4년제 대학교 졸업 ____④ 대학원 재학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기타 경우에는 직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① 전문기술직 ____② 사무관리직
____③ 판매서비스직 ____④ 생산노동직
____⑤ 자영업 ____⑥ 전업주부
____⑦ 기타 (_____)

4. 귀하의 **주당 근무시간**은 대략 얼마입니까?

____① 20시간 미만 ____②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____③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____④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____⑤ 5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____⑥ 60시간 이상
____⑦ 무직(전업주부)

5. 귀하의 직업 **근무방식**은 무엇입니까?

____① 전일제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
____② 시간제 정규직:	학업, 출산 등 개인적인 수요에 따라 특정 시간까지만 일을 하지만 시간당 임금, 정년,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근로형태
____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미리 정해진 총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출퇴근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형태, 플렉스타임제(flex time)
____④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____⑤ 무직(전업주부)	
____⑥ 기타: (_____)	

기타의 경우 근무방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빠뜨린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지는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다시 기관으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6)

IRB No. 1809/002-011 유효기간: 2019년 9월 9일

ID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용 설문지

본 설문지는 어머니용으로 **어머니께서 직접**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는 **평소 자녀와의 놀이 시간과 놀이를 할 때 어머니의 생각 및 행동, 유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맞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평소 자녀의 모습과 놀이를 할 때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질문 내용에 따라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으며, 학문적인 목적 외에는 어떤 곳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모님의 솔직한 답변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셔야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끝까지 잘 읽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질문지는 자녀가 등원할 때 담임교사에게 밀봉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8년 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유 예 진 올림

지도교수 : 이 강 이

◎ 다음은 어머니의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참고>를 읽으시고 **평소 생활과 가까운 날을 떠올리신 후** 각 질문에 시간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번~2번).
◎ 아래 질문에서 나오는 **"자녀"란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말합니다. **모든 자녀가 아닌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와의 시간으로 한정하여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일상 활동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씻기, 옷 갈아입기) 등
놀이	장난감 가지고 놀기, 장난감 없이 놀기(이야기 나누기, 숨바꼭질), 바깥놀이(산책, 놀이터, 자전거, 공놀이 등), 책 읽기, 예술경험 활동(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 매체이용 놀이(TV시청, 핸드폰·게임기·컴퓨터 등을 이용한 게임), 기타 놀이
학습 활동	학습지 활동, 온라인 학습, 학원 및 기관 과제 활동 등
나들이	공연 및 스포츠 관람, 체험활동, 종교 활동 등
이동하기	기관 경험 전후 이동(등·하원을 위한 이동), 학습 활동 관련 이동 등

<참고: 자녀와의 놀이의 예>

- 함께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하기(혼자 텔레비전 보기는 아님)
- 산책, 운동 등을 함께 하기(혼자 놀이터에서 놀게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지만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준다거나 상호작용을 함께 하는 것은 포함될 수 있음)
- 목욕하며 물놀이하기, 함께 요리하기(단순히 씻기고,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 등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은 아님)
- 책 읽어주기(혼자 책을 읽게 하거나 학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

1. **평일**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1-1. **평일**에 어머니께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ex. 일상 활동, 놀이, 학습 활동, 나들이, 이동하기 등)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1-2. **평일**에 어머니께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중 **놀이하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세부 놀이 시간	
● 자녀와 함께 **매체이용 놀이**를 하는 시간 (ex. TV시청, 핸드폰·게임기·컴퓨터 등을 이용한 게임)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자녀와 함께 **실내 놀이**를 하는 시간 (ex. 장난감 가지고/없이 놀기, 책 읽기, 예술경험 활동 등)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자녀와 함께 **바깥놀이**를 하는 시간 (ex. 산책, 놀이터, 자전거, 공놀이 등)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2.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2-1.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어머니께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ex. 일상 활동, 놀이, 학습 활동, 나들이, 이동하기 등)

토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일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뒷장 계속(1/7)

2-2.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어머니께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중 **놀이하는 총 시간**은 하루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토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일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세부 놀이 시간	
● 자녀와 함께 **매체이용 놀이**를 하는 시간 (ex. TV시청, 핸드폰·게임기·컴퓨터 등을 이용한 게임)	토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일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자녀와 함께 **실내 놀이**를 하는 시간 (ex. 장난감 가지고/없이 놀기, 책 읽기, 예술경험 활동 등)	토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일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자녀와 함께 **바깥놀이**를 하는 시간 (ex. 산책, 놀이터, 자전거, 공놀이 등)	토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일요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아래의 질문은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와 놀이 시 어머니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날의 자녀와 놀이상황을 떠올리시며** 각 질문을 읽으시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1번~21번).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주로 내가 주도하는 편이다.				
2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신체적 높이를 낮춘다.				
3	나는 아이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못마땅해서 바로 잡아주고 싶다.				
4	나는 아이가 잘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해준다 (예: "와", "잘하고 있어" 등)				
5	나는 아이가 나타내는 신호, 비언어적 요구 등 작은 행동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6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가 주도하는 것에 따르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활동을 반복하며 유지한다.				
7	나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이 아이가 하는 방법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대로 따라주길 바라는 편이다.				
8	나는 아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지켜보기만 하는 편이다.				
9	나는 아이와 장난감 없이 놀이를 하라면 막막할 것이다.				
10	아이와 놀이할 때, 아이보다 내가 하는 말이 더 많은 편이다.				
11	나는 아이와 함께 놀이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12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13	사실 나는 아이의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뒷장 계속(2/7)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아이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매우 딱딱하고 냉랭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15	내가 질문한 것에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반응할 때까지 요구한다.				
16	나는 아이의 행동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예: 칭찬, 격려의 말 등)				
17	나는 아이에게 내 의도대로 하도록 이끌지 않는다.				
18	나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만지는 것이나 보고 있는 곳을 함께 쳐다본다.				
19	나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예: 얼굴표정, 언어표현, 제스처 등) 즉각적으로 반응해준다.				
20	나는 아이와 놀이할 때, 아이가 그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도록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한다.				
21	나의 목소리 톤은 밋밋하고 아이와 놀이할 때에도 변함이 없다.				

◎ 아래의 질문은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와의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을 읽으시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라며 해당란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1번~30번).

	문항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놀이는 아이가 협력하기, 친구 사귀기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2	놀이는 아이가 셈하기, 문자인식과 같은 학습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4	나는 내 아이와 놀 때, 정말 즐겁다.					
5	아이가 언어와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놀이가 도움이 된다.					
6	나는 아이와 함께 놀기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주는 편이다.					
7	나는 놀이를 하며 내 아이에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8	놀이는 아이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나는 놀이를 하는 동안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10	가정에서의 놀이는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뒷장 계속(3/7)

	문항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1	내가 아이와 놀아 준다면, 내 아이는 놀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12	놀이는 내 아이의 사고력 신장을 도울 수 있다.					
13	내 아이에게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 것보다 좋은 학습 기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14	우리 집에서는 놀이시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15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16	내가 아이와 놀이시간을 가진다면, 아이는 친구들과 더 잘 놀게 될 것이다.					
17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함께 놀아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18	내 아이는 나와 놀이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19	나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형제, 조부모, 배우자 등)이 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	아이는 나 없이 혼자 놀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21	아이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데 놀이가 도움이 된다.					
22	취학 전 자녀와의 놀이는 문자나 숫자를 가르치는 것보다 유익하다.					
23	놀이는 내 아이에게 즐거운 행동이다.					
24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은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					
25	나는 아이가 놀이를 통해 중요한 기술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6	아이는 놀이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7	내 아이는 놀이하는 동안 지나치게 흥분한다.					
28	내 아이는 나와 함께 놀 때, 정말 즐거워한다.					
29	아이는 놀이를 하며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킨다.					
30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는 아이의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뒷장 계속(4/7)

IRB No. 1809/002-011 **유효기간: 2019년 9월 9일**

◎ 다음은 **자녀의 기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의 내용이 **자녀의 평소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생각하셔서**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각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1번~20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2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3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4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5	우리 아이는 잘 운다.					
6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7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8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9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0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11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12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13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14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15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16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17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 좋아한다.					
18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귄다.					
19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20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뒷장 계속(5/7)

◎ 다음은 **가정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질문은 **설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1번~10번).

1. **이 질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의 **출생 년, 월**은 어떻게 됩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개월)

2. **이 질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① 남성 ___② 여성

3. **이 질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의 **출생순위**는 무엇입니까?

___① 외동 ___② 첫째 ___③ 둘째
___④ 셋째이상

4. **이 질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의 생후부터 현재까지 **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 이용기간**은 얼마입니까?

- 기관이란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교육·보육 기관으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과 국립/병설/단설/사립 유치원을 의미합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의 이용기간까지 합산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___① 6개월 미만 ___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___③ 1년 이상-2년 미만
___④ 2년 이상-3년 미만 ___⑤ 3년 이상

5. 귀하의 **나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만 _____세

6.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___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___②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___③ 4년제 대학교 졸업 ___④ 대학원 재학 이상

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기타 경우에는 직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① 전문기술직 ___② 사무관리직
___③ 판매서비스직 ___④ 생산노동직
___⑤ 자영업 ___⑥ 전업주부
___⑦ 기타 (_____)

뒷장 계속(6/7)

8. 귀하의 **주당 근무시간**은 대략 얼마입니까?

___① 20시간 미만 ___②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___③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___④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___⑤ 5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___⑥ 60시간 이상
___⑦ 무직(전업주부)

9. 귀하의 직업 **근무방식**은 무엇입니까?

___① 전일제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
___② 시간제 정규직:	학업, 출산 등 개인적인 수요에 따라 특정 시간까지만 일을 하지만 시간당 임금, 정년,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근로형태
___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미리 정해진 총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출퇴근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형태, 플렉스타임제(flex time)
___④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___⑤ 무직(전업주부)	

___⑥ 기타: (_____)
기타의 경우 근무방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귀하의 **가정(아버지+어머니)의 월평균 총소득**(세금공제 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① 200만원 미만 ___②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___③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___④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___⑤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___⑥ 600만원 이상

※ 빠뜨린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지는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다시 기관으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7)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al Play Involvement on 3-Year-Old Children's Peer Relationship Skills

Yoo, Yej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amine the general aspects of Korean 3-year-old children's peer relationship skills according to gender, (2) to examine the general aspects of parental play involvement (playtime, play behavior), (3)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3-year-old children peer relationship skills and parental play involvement, and (4)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play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laytime and 3-year-old children's peer relationship skills.

A total of 132 3-year-old children from 13 childcare centers in Seoul, Gyeonggi, Chungbuk, and Gyeongnam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child participated in the Skill Situation Test which was presented as pictures. Mothers and fath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time spent on play with children, as

well as their play behavior.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using STATA 13.0 program. In addition, post-testing of the moderate effects was performed using the PROCESS macro for SP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playtime was averaged 2.25 hours per day; mothers played more with their children than fathers did. Parents often play indoors during weekdays and outdoors on weekends with their children. Among the three subfactors of the parental play behavior, responsive and facilitative play behaviors were slightly higher while directive play behavior was at an intermediate level. The scores of fathers and mothers in all subfactor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peer relationship skills of 3-year-old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to parental playtime, as well as to two subfactors of parental play behavior; responsive and facilitative. However, its correlation to directive play behavior, another subfactor of parental play behavior, was not significant.

Third, parental playtime and responsive play behavior had significant effect on peer relationship skills of 3-year-olds. As parents spend more time playing with their children and involve more responsively, the skills required to build and maintain positive relationships to peers was higher in the 3-year-olds. Furthermore, parental responsive play behavior had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laytime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of 3-year-olds. In other words, when parental playtime is low, the positive effect of parental responsive behavior on peer relationship skills of 3-year-olds is higher.

Fourth, parental facilitative and directive play behavi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peer relationship skills of 3-year-olds and the interaction effect with parental playtime was also not significant. This indicates that parental play behaviors of encouraging the children to participate or directing and teaching the children did not affect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 skills. The result also indicates that the levels of parental facilitative and directive play behaviors did not change the impact of parental playtime 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 skills.

This study verifies the importance of parental play involvement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development of 3-year-old children's peer relationship skills. Furthermore, the results reveal that parents' responsive play behavior can moderate the effect of parental playtime on 3-year-old children's peer relationship skills. By verifying th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responsive play behavior, this study confirmed that parents who have a limited time playing with their children in reality could still support and promote positive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s peer relationship skills by providing highly responsive play behavior during play.

keywords : 3-year-old children, peer relationship skills, parental play involvement, parental playtime, parental play behavior
Student Number : 2017-23882